

10월 정세 동향과 전망

*고유가, 환율 폭등으로 인한 농가경제 악화 심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폭등의 불뚱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 기초가 꺾이지 않으면 하반기에 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환손실도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농업계는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비료값 등 농업 원자재 상승, 고유가 등으로 이중고가 불가피했던 올해 상황으로 영농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농지매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지만, 신청 금액 경우 전남지역 농가만 보더라도 경영위기에 처해 내놓은 농지만 500억여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부족으로 신청농가 모두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어 이래저래 농가가 겪는 심리적 부담은 극에 달해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수확기 쌀값 보장 필요

2009년도 수급상황은 2008년산 생산량 증가, MMA 수입 증가 및 소비량 감소 등으로 양곡연도 말 재고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2008년산 벼 가격은 55,849원/벼40kg으로 전년 동기대비 11.2%, 전년 수확기대비 16.2% 높은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매입물량을 전년대비(41.7만톤) 4% 감소한 40만톤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RPC 등 민간매입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작황과 생산비 상승을 감안하면 정부의 방향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농연은 공공비축물량을 FAO 권장량인 43만톤으로 유지할 것과 목표가격 보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열악한 지역농협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매입가에 대해 전액 벼 매입 무이자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에서도 벼 자체매입가를 작년 대비 15% 이상 인상해야만 수확기 쌀 값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지 쌀값에 따른 농가수취소득 증감추이

(단위 : 원)

구 분	RPC 매입가	목표 가격	고정 직불금	변동 직불금	지자체 직불금	40kg 조곡 수취 소득	10당 농가 조수입
한농연 요구 쌀값	60,000	59,193	4,131	0	5,000	69,131	1,168,139
2007년 쌀값 평균	52,030	59,193	4,131	1,957	0	58,118	982,194

※가정 1) 도정료는 80kg당 5,656원으로 계산

가정 2) 단수는 10a당 40kg 조곡으로 16.9가마 기준

*농민을 위한 생산적인 국정감사 이뤄져야

지난 10월 6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18대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뒀을 올렸다. 한나라당 농식품위 간사인 이계진 의원은 항상 '농어민을 먼저 생각하고 농어민을 위한다'라는 대원칙 아래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비료·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 ▲농가부채 해결 방안 ▲한·미FTA 체결 이후의 농어업 보호대책 ▲식품안전 문제 ▲농협 및 수협법 개정문제 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야당 또한 대립이 아닌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모적인 정치공세는 지양하고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하나 돼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소값 하락, 비료·사료값 인상 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농협 유통체계 정비를 통한 제값 받기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상향 촉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농연 또한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피감기관에 모니터 요원을 파견하여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농식품위가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할 지 현장 농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밝힌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농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